

소리를 찾아



▶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 12일부터 25일까지

2017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Sound Artist Residency)'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남원에서 열린다.

남원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남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예술의 소리, 자연(지리산)의 소리, 숲 속에 스며있는 소리들을 찾고, 현대 예술적 관점과 접근 방법을 통해 소리(사운드)의 예술적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이다.

2016년에는 국내·외 작가 6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2017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작가 3인과 국외 작가 4인이 남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내 작가로는 사물이 내는 우연한 소리들을 포착하여 작품을 만드는 시각예술, 사운드

국내외 작가 4인 참여

아티스트 김서량 작가와 이미지와 소리의 특징을 활용하여 인터랙티브 설치예술을 선보일 박성준 작가, 그리고 지역 특유의 음식과 사투리, 공간을 활용한 작품을 만드는 서혜순 작가가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4명(개인2, 그룹1)의 아티스트가 함께 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초르 구안(CHOR GUAN)은 자연의 소리를 아카이빙 하며 모바일을 통해 시민 참여 작품 등을 만든 사운드 아티스트이다. 그리고 여러 사운드 장비들을 활용하여 소리를 통해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하는 사운드 아티스트 마크 라이

켄(영국)과, 건축물과 사물에서 일어나는 소음으로 치부되기 쉬운 사운드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싱가포르의 소밴드와인(Sobandwine)팀(Wei Li Leow와 Dominic Khoo)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7인의 참여 작가들은 남원지역을 돌며 2주간의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며, 기간 동안 남원의 공간을 둘러보고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채집하며 함께 사운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함께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운드 전문가 이외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남원소리문화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보고 토론하는 포럼과 시민과 작가가 함께 하는 시민워크숍 등 시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북 예술발전 기여자는 누구?

(사)한국예총전북연합회(회장 선거현)와 (주)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은 9일 '제21회 전북예총하림예술상' 본상 및 공로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북예총하림예술상은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예술인에게 주는 상으로, 10개 협회와 11개 시·군예총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심사위원으로는 장명수 전 전북대총장과 김남곤 전 전북일보 사장, 황병근 선공관유도회전북회장, 송기택 하림그룹 부장, 선거현 전북예총회장이 참여했다.



전북예총하림예술상
본상·공로상 수상자 발표
본상 김이재씨 등 6명
공로상은 조성돈씨 등 6명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펴온 점, 특히 마이산 금척무를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키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인 것이 수상 배경으로 작용했다.

본상 수상자로는 김이재(공예·56), 고기하(사진·60), 홍석찬(연극·53), 이경호(무용·56), 김종갑(연주·61), 이창녕(음악·67) 씨가 선정됐다.

전북미술협회 부회장이자 김이재 씨는 미술인들의 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이며 2016년도부터 메세나 운동 차원에서 회원들의 작품을 1억 원 상당씩 구매하는 등 문화예술 사랑을 몸소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시부장직을 맡고 있는 고기하 씨는 1년에 2회씩 소식지를 발간하고 한국음악사진촬영대회 등을 유치해 사진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전주시립극단 상임연출가인 홍석찬 씨는 어린이극단 가지동과 창작극회 대표를 역임하며 연극공연 활성화와 후배양성에 헌신적인 역할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경호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는 후진양성에 전념하면서 전북무용

김종갑 씨는 20년 넘게 익산연예예술인협회장직을 수행하며 매년 불우시설을 찾아 봉사공연을 하고 전국규모의 가요제를 실시하는 등 남다른 애환심으로 익산예술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원광대학교 이창녕 교수는 전북음악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협회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로상은 조성돈(음악·70), 김순정(음악·60), 배병연(음악·51), 김덕임(무용·67), 안태현(사진·63), 라이리(영화·40) 씨가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린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200만원,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내일 소리문화전당 클래식 시리즈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11일 오후 7시30분 연주회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7 클래식 시리즈'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신지아는 전주 출신으로 4세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다. 10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에 입학했으며, 예고 1학년 재학 중 영재로 조기 입학해 김남운 교수를 사사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한 없이 연주자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주와 서울을 오가며 밥 먹듯이 연습한 연습벌레다. 때문에 지독한 노력과로 불린다.

2008년 세계적인 권위의 프랑스 퐁투브 국제콩쿠르 우승, 오케스트라상, 리사이틀상, 파리음악원 학생들이 주는 최고상으로 4관왕에 올랐다. 이후 2012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 3위를 하는 등 콩쿠르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에는 바흐를, 2015년에는 슈베르트를 연주한 그녀는 지난해부터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연주를 통해 베토벤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진폭이 크게 느껴질 만큼 연주 색깔이 강한 이유로 강렬하게 표현되는 베토벤의 음악과 닮아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2번과 5번 '봄' 그리고 9번 '크로이처'다. 소나타 5번 '봄'은 청력을 잃고 사랑에 실패하는 등 베토벤 생애 최악의 날들을 보내던 시기에 작곡한 곡이다. 이와 함께 베토벤의 정열과 정신적 투지가 담겨져 있는 9번 '크로이처'는 음악 사상 가장 위대한 기악 소나타라는 평가를 받는 곡으로, 이번 공연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다.

연주를 앞두고 그녀는 "베토벤은 과묵한 이미지로 보여 지지만, 내면은 따뜻한 작곡가다. 베토벤이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을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사이틀은 2011년 본베토벤 국제 콩쿠르 2위, 2014년 뮌헨 ARD 콩쿠르 2위(1위 없음), 2014년 서울 국제 콩쿠르 우승을 거머쥐고, 2016년 객석 이쁨은 차세대 젊은 예술가로 뽑힌 피아니스트 한지호와 함께한다.

공연은 R석 6만원·S석 4만원이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공연단체 '또바기' 내일 완주군 민속 인형극

공연단체 또바기가 완주군 이서면에 지역 설화로 전해 내려오는 '공쥐 팔쥐'를 무대에 올린다.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11일 2시·4시30분 2회 공연되는 작품은 체코의 미리오네트 인형극과 비슷한 우리나라 전래의 민속인형극 꼭두각시놀음으로 연출된다.

포장막 안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꼭두각시놀음은 종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인형을 매개로 사람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또바기 공동대표 최영준·노경탁은 "이번 작품제작은 완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여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전북작가회의, 최명희문학관서 오늘 월례문학토론회 개최

전북작가회의(회장 김병용)는 10일 오후 6시 30분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월례문학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의 대상 작품은 경중호·하기정·권요표 시인의 시집과 소설분과 회원들이 낸 소설집 '마지막 식사' 등 모두 4권이다.

경중호 시인의 동시집 '천재 시인의 한글 연구' (문학동네)는 신재순 시인이 발제를 맡아 '함께 하고 싶었던 모든 순간의 집'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하기정 시인의 시집 '밤의 귀 낫의 입술' (모악)은 김형미 시인이 '귀와 입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소개한다.

또 권요표 시인의 시집 '너무 멀지 않게' (모악)에 대한 의견은 문학평론가 문신 씨가 '시인의 귀환'이란 글에 담았다.

전북작가회의의 소설분과 회원들이 음식을 테마로 최근 펴낸 소설집 '마지막 식사' (예곡)는 참여 작가인 김소윤, 김저운, 이광재, 장미리, 정도상, 차선우, 황보윤, 한지선 씨가 자신의 작품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단풍미인쇼핑몰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깊어 가는 가을! 더욱더 생각나는 우리 먹거리!

가을에도 역시 단풍미인쇼핑몰입니다.








7080 추억여행 팡파티!
 2017. 11.11(토)~12(일) 인인 양양동축제

- 첫째 날 일정: 정읍 농경문화체험관 도축(12시 한) - 중식(추억의 도시락) - 내장산 관광 - 석식 - 개막식(인사말씀) - 어물미당 - 공연 및 레크레이션 - 자물시간 및 취침
- 둘째 날 일정: 기상 - 조식 - 체험행사 - 중식 - 해산
- 장 소: 농경문화체험교육관 및 체험농가
- 문의 처: 063)539-6263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080-535-4345(무료), 063-532-4345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읍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